



안세영, 코리아오픈 결승행... 여복·남복 페어도 우승 도전

‘셔틀콧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코리아오픈 결승전에 진출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7일 경기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세계 6위 폰파위 조 추영(태국)과의 2025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 투어 슈퍼 500 코리아오픈 여자단식 준결승에서 기권승을 거뒀다. 안세영은 오는 28일 세계 4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 맞대결 승자와 결승에서 격돌한다. 2022년과 2023년 대회 우승자인 안세영은 지난해 대회를 무릎과 발목 부상 때문에 놓쳤다. 올해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슈퍼 1000), 인도오픈(슈퍼 750), 올레앙 마스터스(슈퍼 300), 전영오픈(슈퍼 1000), 인도네시아오픈(슈퍼 1000), 일본오픈(슈퍼 750), 중국 마스터스(슈퍼 750)를 제패하

여자단식 준결승서 세계 6위 태국 초추영에 기권승
여복 김혜정-공희용, 이소희-백하나 꺾고 결승 진출
남복 김원호-서승재, 일본 호키-코바야시 격파 성공

며 7승을 기록 중이다. 이때 초추영이 리시브를 위해 발을 내딛던 중 왼쪽 종아리를 붙잡고 쓰러졌다. 경기가 중단됐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안세영이 기권승을 거뒀다. 안세영은 코트에 주저앉은 초추영을 일으켜 세워주며 남다른 프로 의식을 보여줬다. 같은 날 여자복식 준결승에선 한국 선수들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김혜정(삼성생명)-공희용(전북은행) 조는 백하나-이소희(이상 인천국제공항) 조를 상대로 접전 끝에 2-1(21-19 19-21

21-14) 승리를 거두며 결승에 올랐다. ‘킹콩 듀오’는 인도네시아 마스터스(슈퍼 500), 올레앙 마스터스, 싱가포르오픈(슈퍼 750)에 이어 올해 4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김혜정-공희용은 이와나가 린-나카니시 키에(일본) 조와 결승에서 맞붙는다. 김원호-서승재(이상 삼성생명) 조는 호키 타쿠로-고바야시 유고(일본) 조와의 남자복식 준결승에서 2-0(21-16 21-12) 완승을 거뒀다. 결승에 진출한 두 선수는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슈퍼300),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 일본오픈,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 이어 올해 8번째 우승을 노린다. 김원호-서승재의 코리아오픈 마지막 상대는 파자르 알피안-무함마드 쇼히볼 피크리(인도네시아) 조다. /뉴스



화순군 ‘제4회 무등산권 지오마라톤대회’ 개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기원한다’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6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기원하기 위해 ‘제4회 무등산권 지오마라톤대회’를 화순군 백야면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등산권 지오마라톤대회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기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담양군, 광주문화방송과 화순군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재인증기원”을 주제로 2km 걷기코스를 신설해 서유리 공동화석지를 탐방하는 지오트레일로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오해설사의 교육코스도 진행한다. 오는 10월 11일 오전 8시 금호화산리조트에서 출발해 담양군 가사문학면 인암삼거리를 지나 화순군 백야면 다곡삼거리를 반환해 돌아오는 경로에서 2km 걷기, 5.18km, 10km, 하프코스, 30km 등 5개 코스로 열린다. ‘재인증기원’을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1,450명의 마라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윌스톰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방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카페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중외공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흥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흥 GS건설 | (주)이원화/건설 | HDC엔지니어링개발

프로야구, 국내 프로스포츠 최초 1200만 관중 돌파

평균 1만7097명·좌석 점유율 82.9%... 총 321경기 매진
삼성·롯데, 150만명 돌파... 7개 구단이 100만 관중 넘겨

프로야구를 향한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는다. 흥행 돌풍을 이어간 프로야구가 1200만 관중까지 넘어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7일 열린 2025 신한 솔뱅크 KBO리그 SSG 랜더스-두산 베어스(잠실구장), LG 트윈스-한화 이글스(대전 한화생명볼파크), NC 다이노스-KIA 타이거즈(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의 경기에 총 5만5695명의 관중이 입장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 한화생명볼파크(1만7000명)와 잠실구장(2만3750명)에는 만원 관중이 들었다. 이로써 프로야구는 출범 44년 만에 처음으로 시즌 관중 1200만명을 돌파했다. 올 시즌 703경기에 누적 관중 1201만9267명을 동원했다. 단일 시즌 1200만 관중은 국내 모든 프로스포츠를 통틀어 최초의 기록이다. 지난해 관중 1088만7705명을 불러모아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최초로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어젖힌 프로야구는 올해 한층 뜨거운 열기를 자랑하며 관중 신기록을 다시 한번 써냈다. 경기당 평균 관중은 1만7097명으로, 지난해 동일 경기 수 대비 약 15% 증가했다. KBO리그 전체 좌석 점유율은 82.9%에 달한다. 흥행 돌풍이 이어진 올 시즌 프로야구는 100만명 단위 관중 기록을 모두 역대 최소경기로 달성했다. 8월23일 두 시즌 연속 1000만 관중을 넘어섰고, 이달 5일에는 한 시즌 최다 관중 기록을 갈아치웠다. 또 9일에는 역대 최초로 1100만 관중을 달성한 뒤 이날 또 하나의 신기록을 썼다. 삼성 라이온즈는 이날 27일까지 치른 홈 70경기에 총 관중 161만6241명을 불러모았다. KBO리그에서 한 구단이 단일 시즌 160만 관중을 돌파한 것은 삼성이 처음이다. 롯데 자이언츠가 150만7704명을 기록해 구단 최초로 150만 관중을 넘겼다. 홈 69경기에 149만4958명이 입장한 LG는 홈에서 한 차례 더 경기를 펼칠 예정이라 150만 관중 돌파가 유력하다. 여기에 두산(140만6682명)과 SSG(123만5909명), 한화(119만7840명), KIA(104만3709명)까지 총 7개 구단이 100만명 이상의 관중을 기록했다. 아울러 삼성, LG, 두산, KT 위즈, SSG, 롯데, 한화, 키움 8개 구단이 구단 자체 한 시즌 최다 관중 기록을 경신했다. 홈에서 두 경기를 남기고 있는 NC도 2만7214명이 더 입장할 경우 구단 한 시즌 최다 관중 기록을 새로 쓴다. 올 시즌 매진 경기 수는 지난해 세운 단일 시즌 최다 매진 기록인 221경기를 훌쩍 넘어 321경기를 기록했다. 27일까지 치른 703경기 중 약 45.7%에 해당하는 경기가 매진됐다. 구단 별로는 한화가 홈 71경기 중 60차례로 가장 많은 매진 사례를 썼다. 한화는 올 시즌 개장한 한화생명볼파크가 1만7000석에 불과해 홈 경기 관중 수 6위지만, 좌석 점유율은 무려 99.2%로 1위다. 삼성이 홈 70경기 중 53차례, 롯데가 73경기에서 44차례, LG가 69경기에서 41차례 등 4개 구단이 40회 이상 매진을 작성했다. /뉴스

KIA 양현종, 11시즌 연속 150이닝... 이강철 넘어 역대 최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좌완 에이스 양현종이 11시즌 연속 150이닝을 달성했다. 양현종은 2014년 171⅓이닝을 던진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해외에서 뛰 2021년을 제외하고 11시즌 연속 150이닝 이상을 소화했다. KBO리그 역사에서 11시즌 연속 150이닝을 기록한 투수는 양현종이 처음이다. 지난해에도 171⅓이닝을 소화해 이강철(1989-1998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왼손 투수로는 최초로 10시즌 연속 150이닝을 써낸 양현종은 올해에도 150이닝을 넘기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양현종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시즌 연속 170이닝을 달성했다. 이 역시 KBO리그 최초 기록이었다. 이날 양현종은 3회초와 4회 김형준, 멧데이비스에 솔로포 한 방씩을 얻어맞았지만, 6회까지 추가 실점없이 버텼다. 다만 KIA가 NC에 1-2로 뒤진 7회초 교체돼 패전 위기에 놓였다. /뉴스